



청년 예술인 456명,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

- 3. 10. 국립국악원에서 ‘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’ 개최
-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3월 10일(화) 오후,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*, 국립국악원(원장 직무대리 황성운), 국립극장(극장장 박인건),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‘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’을 개최했다.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.

* 국립오페라단, 국립발레단, 국립합창단,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, 국립현대무용단, 국립극단, 국립정동극장

‘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’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.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,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. 올해는 총 473명(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)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.

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,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.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.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.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.

클래식, 무용, 전통,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, 실무 교육·공연·결과 발표회 등 참여

2026년 청년교육단원 473명은 클래식, 무용, 전통, 연극 등 소속 단체별로

운영하는 월 30시간~40시간 내외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며, 올해 국립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. 또한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배우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 만든 작품을 분야별로 선보일 계획이다.

김영수 차관은 “이번 발대식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만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”이라며, “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	책임자	과장	강은영 (044-203-2731)
		담당자	서기관	정현자 (044-203-2738)

